

고공 유가

“한국 대처능력 떨어진다”

美 석유산업 정보지 “석유공사 자금조달 능력·기술력 미흡”

원유 자주개발률 4% 불과…내년 목표치 10% 달성 힘들 듯

자체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4일 정부 관계당국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석유산업 정보지 PIW(Petroleum Intelligence Weekly)는 지난달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다루면서 자금조달 능력과 기술력 미흡으로 정부가 목표한 원유 생산계획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까지 국내 원유수입 28% 상당량을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에서 충당한다는 게 한국정부 목표이나 올해 원유 자주개발률이 4% 선으로 전망돼

2008년 목표치인 10% 달성을 쉽지 않은 게 PIW의 진단이다.

PIW는 석유공사가 2015년까지 영업이익 20억 달러, 일일 생산량 40만 배럴, 매장량 20억 배럴을 확보할 계획이나 지난해 공사의 영업이익이 3억2천500만 달러, 생산량 4만5천 배럴, 매장량 5억4천900만 배럴선에 그쳐 현재로서는 목표달성이 다소 어려운 상태라고 평가했다.

PIW는 현재 한국 석유개발의 문제

점과 세계 메이저 기업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기술력, 규모와 능력에서 세계 100대 에너지 기업에도 못미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꼽았다.

석유공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에너지 기업을 인수·합병(M&A)하기로 하고 지난달 영국 버렌에너지에 인수 제안을 했으나 거격문제로 일단 거절당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으나 버렌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에너지기업과 유전 등에 대한 M&A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석유뿐 아니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화석연료 대체상황도 계획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제2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서 오는 2011년까지 29억6천932만3천 toe(석유환산톤)의 1차 에너지 소비 가운데 5%인 1천333만5천 toe를 태양광과 풍력·연료전지·바이오 등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로 재운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센터의 평가에 따르면 현재의 정책으로는 2011년 달성을 3.4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 경제교육

광주상공회의소(회장직무대행 박홍석)는 지난 2일 7층 회의실에서 광주시내 초등학교 어린이회장단 81명을 대상으로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어린이 회장 경제교실’을 열었다. 이날 교육은 ‘돈은 왜 생겨났나?’·‘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광주상의 제공>

“유가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 조정”

국제금융센터 분석

배럴당 100달러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제유가는 가격부담 증대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화로 전망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제금융센터는 4일 폐년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는 수급 불균형 심화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가 여전히 자제적이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수적인 에너지 분석가들은 수급 불균형의 심화로 유가가 내년 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

으로 보고 있다. 일부 투자은행(IB)들은 향후 1~2년내 유가가 120~13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원유 수요는 연평균 2.2%씩 증가해 2012년에는 일평균 9천580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공급은 기존 설비의 노후화 및 유전개발 지연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이치뱅크의 경우 G7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원유 구매력은 현재 456배럴로 1980년대 초에 비해 30~40% 증가했고, 이런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국제유가는 향후 1~2년내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세탁기·냉장고의 캠프레서 부품 제조업체인 (주)에스제이금속이 지난 2일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에스제이금속은 연간 3만6천t의 선별제품을 생산, 삼성광주전자 등에 공급하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에스제이금속 장성공장 준공

3만6천t 주물제품 생산

삼성광주전자에 납품 시작

선별 주물제조업체인 (주)에스제이금속(회장 주경석)이 지난 2일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에서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에스제이금속은 연간 3만6천t의 주물제품을 생산, 삼성광주전자에 세탁기·냉장고 등 캠프레서 부품과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에스제이금속은 연간 400억원의 매출과 함께 100여명의 고용창출을 발생,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됐다.

에스제이금속은 이달 중순 ISO 9001·ISO14001 등 인증획득을 통해 최적의 경영시스템을 구축, 부품 가공업체에 진출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저소득자 전세자금 7천만원까지 지원

건교부, 14일부터

오는 14일부터는 수도권에서 보증금 7천만원짜리 전세를 구할 경우에도 저소득자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최대 7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1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금은 특별시에서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전세계약 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광역시 및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기타 3천만원으로 돼 있다. 건교부는 이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천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는 5천만원, 기타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1인당 최대 3천500만원(5천만원의 70%)까지만 자금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4천900만원(7천만원의 70%)까지만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확대에 따라 추가로 2천750억원이 늘어나 전체 소요 재원이 1조1천15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늘어나는 금액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주택자금 대출 신보료 최대 50% 인하

무주택 서민들이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때 내는 신용보증료가 많게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을 통한 개인 및 사업자보증의 기준보증료율을 현행보다 최대 50% 까지 인하해 5일부터 보증이 실행되는 신규 고객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보증의 경우 현재 연 0.3% (중도금연계보증기금)~1.0%(플러스

내집마련보증)인 보증료율을 0.2~0.5%로 낮춰 최대 0.5% 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보증금액이 1천만원인 일반임차자금보증의 경우 고객의 연간 보증료가 현행 5만~10만원에서 3만~5만원으로 줄어든다.

미분양아파트 증가 등 중소주택 건설사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임대주택건설자금 등 사업자보증도 현행 1.0~1.2%인 보증료율을 0.5~1.0%로 하향조정한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애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주)신영하이테크	해외 프로젝트 지원자 급정 수주 및 관리 사원모집	대출/경력3년	회사내규	11/09	062-949-8800
한진실업(주)	자재담당 관리사원 모집.	초대졸/경력3년	1800~2000	11/09	062-953-4702
(주)문준건설	공무 경력직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1/09	062-225-3111
(주)엔티시	기계설계 및 제작 인원모집	고졸/경력3년	1800~2000	11/09	062-972-1241
i.m.c	IT 상담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9	062-444-5511
태웅산업	생산파트 및 냉테리 생산라인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10	016-683-0943
삼성화학(주)	품질보증 관련 사무업무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1/10	062-951-8001
장원교육문화(주)	[장원교육문화] 친절한 장원선생님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1/12	051-465-6664
기이자동차증강대리점	2007년 하반기 신입 및 경력 영업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6	062-234-0304
남해칠강(주)	정규직 생산부(생산관리, 품질관리)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6	062-943-8676
(주)도시환경이엔지	LED 조명연구원모집	대출/경력무관	회사내규	11/16	062-971-3072
AIG 생명보험	[AIG 순천서비스센터] AIG 상담원 및 TM 2기 대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8	1588-8211, 9093
대명이티(주)	지통제어관련구인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8	016-315-8397
리昂로렌지 스튜디오	촬영기사, 촬영보조, 모니터, 상담직, 앤솔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9	062-971-8804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환율 덕 국민소득 2만불

세계 순위는 41위 그쳐

원·달러 환율하락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세계 순위는 40위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4일 세계은행(WB)과 민간경제연구기관에 따르면 세계는 행이 전세계 209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민소득(GNI)을 집계한 결과 1만달러대와 2만달러대의 분기점이 되는 그리스는 2만7천690달러로 40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2만달러를 넘어서더라도 세계순위는 41위에 그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이 조사에서 1만7천690달러를 기록, 49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가 8천 880억달러로 세계 13위이나 이에 걸맞는 1인당 국민소득을 달성하려면 현 수준보다 2배 이상 상승해야 한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3위인 국가는 네덜란드로 4만2천 670달러로 달한다.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8천566억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12위로 더 상위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2위인 국가는 스웨덴으로 4만3천 480달러에 달한다. 이같이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의 세계 순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면에서 비교되거나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북유럽·리히텐슈타인·스위스·핀란드·오스트리아·벨기에 등 유럽 강소국들과 석유수출국인 카타르·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LG텔레콤, GS칼텍스 제휴

주유 ℓ당 최대 500원 할인

LG텔레콤은 GS칼텍스와 제휴해 주유시 ℓ당 최대 500원을 통신요금에서 할인해주는 ‘주유할인 프로그램’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유할인 프로그램은 LG텔레콤 무료통화 요금제나 마이레저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전월 휴대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GS칼텍스에서 주유할 때 ℓ당 100~500원(월 50ℓ 한도)을 다음달 통신요금에서 할인해주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 한달 휴대전화 요금이 3만4천500~5만원이면 ℓ당 100원, 5만~7만원은 ℓ당 200원을 휴대전화 요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7만~9만원은 ℓ당 300원, 9만~10만원은 400원이 할인되고 1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내는 가입자는 ℓ당 500원을 할인받는다.

5만원 미만을 통신요금으로 내는 가입자라면 한 달에 5천원의 통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상 내는 가입자는 2만5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직장인 품위유지 月 22만원 쓴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직장인 1천133명을 대상으로 품위유지비 소비 현황을 설문한 결과, 직장인들이 한달 평균 22만원을 품위 유지에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한인 여부에 따라 미혼 직장인은 한달에 평균 23만원, 기혼은 20만원을 썼다.

직장인들은 품위 유지를 위해(복수응답) 대개 ‘의류 구입’(54.5%)과 ‘친목 유지’(51.5%)에 돈을 지출했다. ‘외식’(28.5%), ‘문화생활’(28.0%), ‘화장품 구입’(22.8%) 등에 쓰는 이도